



[금융] '창립 58주년' 기업은행 플랫폼 사고 대전환 06



Economy

코스피	2017.34	(-7.21)	코스닥	622.26	(-7.92)
금리 (연대)	1.31	(+0.02)	환율 (원/달러)	1188.50	(+5.40)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세포 사멸 유도 新항암제 개발 '쾌거'

KAIST 김유천 교수 공동 연구팀
구체원리 밝혀 실제적용 한계 넘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가 개발됐다.

카이스트(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세포의 이온 항상성을 교란하는 새로운 원리로 암세포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온 교란 펩타이드는 세포의 활성산소 농도를 급격하게 높이고 세포에 강력한 스트레스를 줘 암세포의 자가 사멸을 유도한다. 물에 대한 용해성도 우수해 향후 임상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 안팎의 이온 기울기는 세포 성장과 대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세포 이온 항상성을 교란하면 세포의 중요한 기능이 억제돼 자가사멸을 촉진할 수 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천 교수(좌), 이대용 박사. /카이스트

기존의 이온 항상성 교란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동물 실험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온 항상성 교란을 통한 자가사멸 원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수용성을 지니고 칼륨 이온을 운반할 수 있는 알파나선 펩타이드 기반 항암물질을 개발했다. 펩타이드 끝에 양이온성을 지니며 친수성이 강한 그룹과 칼륨 이온 운반이 가능한 그룹을 결합해 이온 수송 능력과 친수

성을 갖게 만들었다.

이 항암 펩타이드는 세포 내 칼륨 농도를 낮추고 칼슘 농도를 높인다. 증가한 칼슘 농도는 세포 내 활성산소 농도를 크게 높여 세포 스트레스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자가사멸을 유도한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대용 박사과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수환 박사과정이 공동 1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7월 17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이대용 박사는 "이온 교란 펩타이드는 세포 내의 활성산소 농도를 크게 높여 세포 자가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천 교수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항암 펩타이드는 기존 항암요법의 한계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美, 11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韓경제 더 나빠지면 금리 추가인하 검토”

이주열 한은 총재
美 FOMC 예상보다 덜 완화적
시장 불안시 안정유지에 노력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경제여건이 많이 나빠진다면 통화당국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말했는데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할지 당연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가능성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큰 리스크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만의 조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며 "결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가정한 것으로 말할 순 없고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이다.

연준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금리'인 0.00~0.25%로 인하했다. 이후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기조로 돌아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김희주 기자 hj9@metr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통화당국으로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주열 총재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고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축소를 조기에 종료한 것은 당초 예상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준은 30~31일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 통화정책과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하면 중앙은행이 당연히 안정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日 불매운동에 日식당도 타격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자 사실상 일본과는 관계없는 일식당과 이자카야 등의 주점도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1일 외식업계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당 입구에 부착돼있는 불매운동 동참 안내문. /연합뉴스

7월 수출 11% ↓ 8개월 연속 감소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1.0% 줄어든 461억 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이번 수출 수치는 작년 12월 -1.7%로 마이너스된 후 8개월 연속 하락된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반도체 업황 부진 및 단가 하락, 국제유가 회복 지연에 따른 석유화학·석유제품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이유를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7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1%), 석유화학(-12.4%), 석유제품(-10.5%) 등 주력 품목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수수료 분할지급으로 '먹튀 보험설계사' 근절

금융위, 수수료제도 개선방안

내년부터 암보험 치매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서 때는 사업비가 줄어 보험료가 최대 3% 낮아진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도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이 병행돼 소위 '철새', '먹튀' 설계사 활동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최근 보험사의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증가해 보험 민원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장성보험내 적립보

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개선한다.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외에 일정액을 보험회사에 저축하는 금액이다. 적립보험료에는 보장내용이 없는데도 사업비가 차감된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만기 때 납입한 돈 100%를 환급 받을 수 없고, 사업비만 높게 부가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적립보험료 부분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제한한다.

윤 국장은 "설계사 등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적립보험료의 사업비가 줄면, 보험료는 최대 2~3% 인하되고, 해지시 환급률도 5~1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이 적립보험료인 치매보험의 사업비도 70%로 낮춘다. 치매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적립보험료 사업비가 최대

10%포인트 높다. 금융위는 치매보험의 사업비가 개선되면 보험료는 3% 낮아지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를 첫 해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사업비 체계 개선과 공사·안내 강화는 내년 4월부터,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